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진짜 영적인 사람

성경: 출애굽기 23장 1-13절

Tag:

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4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0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 리할지니라

12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 내가 네게 이룬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23:1-13)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두려움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두려움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본능이다.

이 세상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곧 영생이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이라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쌍하고, 무가치할 뿐이다.

오직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 심판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천사를 볼 수 있어야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하는 말도 듣고, 천사를 보기도 했지만, 그는 뇌물을 받고 사악한 가르침을 베풀다 멸망하고 말았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가 곧 영적인 사람이다.

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말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나쁜 소문이 되어 삼시간에 퍼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위증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이다.

-특히 악인과 연합한다는 것은 사전에 악을 공모한다는 것을 말한다.

-친구끼리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을 짜고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깨달아야 한다. (이미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죄를 범한다.)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자신은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으니, 나도 은근슬쩍 그런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죄란 무리지어 저지를 때 훨씬 죄책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배가된다.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싸여 부당한 증언에 가담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산주의는 집단의 의사를 우선시한다. 5호 담당제. 횡불과 죽창이 법치를 무시하고 테러를 가능케 한다.

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싫어하신다.

-가난은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이 아니다. 가난한 자도 시비를 가릴 경우가 있고, 그때 내가 은근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동정심을 싫어하신다.

-가난을 동정하는 것은 선한 일이나, 그의 죄악을 동정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4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선행인데, 내가 미워하는 자, 원수, 대적에게는 선

행을 베풀고 싶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신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있거든 반드시, (바쁘지 않다면이 아님, 설령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방관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소를 이끌고 원수의 손에 인수인계 해야 한다.

5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다. 그러면 못본채 하지 말고 그 나귀를 도와야 한다.

-설혹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 할지라도 나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법이다.

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때 가난 때문에 결코 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를 변호하려면 그가 물어야 할 범칙금을 대신 내 주어야 한다.

-즉, 정의를 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7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민노총은 떼를 지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들을 방관한 정부는 악한 정부이다.

-현 정부는 그런 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려고 한다.

-죄가 발각되어 형사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누군가가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들의 공모도 악한 것이고, 민노총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도 악한 것이다. 이제 현 정부는 그야말로 법대로 집행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현 정부의 사명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급게 하느니라

-뇌물은 그 자체가 죄악이다.

-선물은 가능하나, 청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있을 수 있으나, 청탁을 위한 뇌물은 죄악이다. (김영란법 3만원, 5만원, 10만원)

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는 이방인, 즉 외국인 노동자를 뜻한다.

-외국인 여행객이 아니라, 노동자, 약자를 뜻한다.

-그는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그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가 불법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압제한다는 말은 그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당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10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 리할지니라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하는 이유는 그 땅에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 심지어 들짐승들을 위한 계명이다. (그러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키우고 싶다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길 고양이로 하여금 스스로 먹이활동을 하게 하라.

12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23:1-13)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에게 빌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라. 입밖에 내지 말라.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도와 이유를 잘 깨닫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계속해야 할 제자의 삶

성경: 히브리서 13장 1-17절

Tag: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 사랑하다가 이제 그만이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서운해서 그만두지는 말라.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손님 대접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선행 이었다.
-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으로 인한 지출이 컸으며 힘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여행 자체가 위험하기도 했으며, 돌발상황도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 요즘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 줌으로 생각하면 된다.
- 그들이 악하더라도 내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 주어라.

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옥살이 하는 자들을 배려 하라.
- 교정선교
- 특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불륜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권한이 주어지면 똑같다. 과거 여자가 더 도덕적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남녀 구별 할 것 없이 똑같은 죄인이다.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경제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일한 만큼 번다.

-알뜰한 만큼 재물이 쌓인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

-위기 가운데 도와시는 분이라는 뜻.

-게으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돕는 분은 아니심.

-소망하는 자를 도와시는 하나님, 갈망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영적 인도자를 본 받으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교훈에 유혹받지 말라.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함?

-특정 음식이 마음에 유익이 됨을 뜻함. 거짓 교훈, 유혹 받지 말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좋다.

-요즘 말로는 건강보조식품.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있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속죄일에 바쳐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않는다.

-두 양; 하나님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타락한 천사 '아자
젤' אַזַּזֵּל 의 유음화

-아자젤은 참소하는 자로 알려져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이후, 지성소는 저절로 열리고,
더 이상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빨간 띠가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한
다.

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
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의 제사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이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13:1-17)

-영적인도자가 나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게 하지 말라.